

주영훈, 이윤미 소속사에 16억 손해소 당했었다

등록 2025.12.01 19:05:45



[서울=뉴시스] 주영훈. (사진 = 채널A '4인용 식탁' 제공) 2025.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작곡가 주영훈이 아내인 배우 이윤미와 연애시절을 돌아본다.

주영훈은 1일 오후 8시10분 방송하는 채널A '절친 토크멘터리 - 4인용식탁'에서 이윤미와 소송이 이어준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이윤미에게 주영훈이 랩을 가르쳐주려 따로 연락하는 것을 본 매니저가 '연애 금지'였던 소속사에 이를 알렸고, 소속사는 무려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사람은 힘든 소송 과정을 함께 지나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다고 회상한다.

또한 저작권 등록 곡만 약 450곡에 달하는 히트 작곡가 주영훈은 명곡 탄생의 비결로 '전주부터 귀를 사로잡는 것'을 꼽는다.

1990년대 활동하던 가수들 대부분과 작업할 만큼 바쁜 시절을 보냈으며, MC 박경림이 박수홍과 부른 노래 '착각의 늪' 역시 시간이 없어 30분 만에 만든 곡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박경림조차 몰랐던 '착각의 늪' 녹음 비하인드로 "박경림의 목소리 파형이 동물 소리와 닮아 8시간 동안 튜닝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결국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발매했다"고 전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그는 최근 작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작곡 관련 제작 회사에 의견을 내면 곧대 취급을 당해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지난 7월, 급성 맹장 패혈증을 겪은 주영훈은 수술 후 근황도 공개한다. 그는 수술하고 몸에 주입된 가스 때문에 아직 어깨 통증이 남아 있다며,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입원하는 동안 "올해 3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털어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